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523명 사업장 배치

일 경험하고 소득 보장...청년일자리 디딤돌 사업 250개 사업장과 매칭·교육...6개월간 현장 경험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참여자 523명이 본격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시작한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4기 참여자는 최종 매칭과 사전 교육을 마치고 10일부터 6개월 동안 개별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지역 내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직무현장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하는 청년일자리 디딤돌 사업이다. 지난 8월 13일부터 4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해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청년과 사업장이 만나는 장을 마련하고 총 523명의 청년이 250개 사업장과 최종 매칭을 마쳤다. 현장매칭을 위해 방문한 청년은 1035명이었고 최종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은 788명으로 이 가운데 사업장과 매칭된 523명 청년이 참여하게 됐다. 매칭에서는 외부 전문위원이 참여해 청년의 적성과 관심,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청년과 사업장을 연계했다. 사업장은 지난 7월부터 모집하기 시작

했고 서류심사, 사업장 방문, 담당자 면접 등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300곳이 참여했으며, 이 중 청년들과 매칭된 사업장은 250곳이다. 시는 청년참여자의 현장 적응력을 키우고 참여기간 교류를 위해 9월 3일부터 5일 동안 노동법, 재무설계, 직무태도 등 전체 교육을 실시했고, 523명을 그룹으로 나눠 소통하는 모듬교육도 병행했다. 청년들은 일경험 현장으로 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청년드림 참여자 연대감도 형성했다. 시는 청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일경험 기간 동안 참여자들의 소모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과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평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올 하반기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장과 청년모집, 현장매칭, 교육과 운영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 3월에 발표된 범부처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실업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호주·뉴질랜드 대사 접견 이윤섭 광주시장이 지난 7일 시청에서 제임스 호주 대사와 접견하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해 의견도 교환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와도 접견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석능력 국제속련도 평가 잔류농약 등 '만족' 판정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분석능력 향상과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식품 중 잔류농약에 대한 국제속련도 평가에 참여한 결과 '만족' 판정으로 국제인증증을 획득했다. 식품분야 국제속련도 평가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에서 주관하는 국제공인 비교속련도 프로그램(FAPAS)으로, 잔류농약 등 10여 개 분야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결과값을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를 시험 분석해 결과값을 도출하고, 참여 기관들의 오차범위(Z-Score)를 근거로 평가한다. 0에 가까울수록 우수하며, 판정은 '만족', '경고', '불만족'으로 분류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추석 물가 특별관리...32개 품목 일일점검

광주시·21개 기관 실무회의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중점대책을 마련, 10월 7일까지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폭염과 이상기후로 생활물가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는 등 물가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자치구,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물가안정대책은 ▲물가관리특별대책기간 운영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물가책임관 지정 및 현장점검 ▲물가안정대책반 운영 ▲온누리상품권 구매운동, 착한가격업소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7일 시청에서 21개 유관단체로 구성된 물가안정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이들 기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0월 7일까지 물가 특별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기간에 사과, 배 등 농축수산물 16종, 쌀, 양파 등 생필품 14종 등 성수품을 포함한 총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일일 물가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 시는 각 자치구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지역별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 주요 생필품의 가격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과 개인서비스요금 담합 행위 등 불공정행위, 가격표시제 위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지난 7일에는 시청에서 식품안전과, 생명농업과 등 시 관련부서와 자치구 경제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수협중앙회, 소비자단체 등 21개 유관단체로 구성된 물가안정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기관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유관기관,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가격 표시제 점검, 신선식품 중심의 사재기, 폭리 행위 방지,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

광주시·(사)희망을 나누는... 디딤씨앗 장학금 후원 협약

광주시와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은 지난 7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 장학금 후원'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으로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은 요보호아동 디딤씨앗통장에 5년 동안 총 1억5000만원을 아동을 대신해 적립 후원하고, 시는 지원대상 아동을 발굴해 추천·연계한다. 디딤씨앗통장사업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1대 1 매칭 지원(월 최대 4만원)해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직장 내 인권지킴이 교육 마무리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9월 6일까지 총 7회 직장 내 인권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요원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인권지킴이 인권교육'을 마무리했다. 인권요원은 광주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디어 발굴, 부서 내 차별 행위 제보, 인권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 등 인권 친화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돼 광주시 실·과·사업소 각 1명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소그룹 형태의 강의와 토론으로 ▲상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인권유무즈맨제도 ▲지금까지 인권침해·차별행위로 조사해 권고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기도 했다. 이 밖에도 물가안정과 함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농수산물 생산자 직거래매장 이용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광주지역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200여 개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나 시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점검

시·5개구·시민단체 민관합동

광주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의원, 노인요양 시설 등에 대해 폐기물 보관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민단체로 구성된 3개 민관합동점검반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여부, 보관장소·표지판 설치 여부, 보관기간 준수, 보관창고 소독 여부,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을 집중 살펴본다. 시는 폐기물 배출사업자에 대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 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므로 인체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보건환경상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대로 발생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의료폐기물 투인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올해 1분기에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2분기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총 76곳을 점검해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보관 표지판 미설치, 변경허가 미이행 위반 등 5곳을 적법해 고발 1건(영업정지 6개월), 경고 1건, 과태료 4건 등 1700만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민·소방공무원 61명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하트세이버(Heart Saver) 명예표장 및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장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심장 박동이 멈춰 죽을 위험에 노출된 응급환자를 병원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표장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적극적 응급처치로 귀중한 생명을 살린 시민과 소방공무원 등 61명이다. 시민 양 모(59) 씨 등 2명은 지난 6월 복구의 한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던 심 모(62) 씨가 쓰러지자 즉시 119에 신고한 후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흉부압박을 계속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비금도 옆에 있는 단독섬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 3번지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 무인도
- 목포에서 50분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교환가능(현금 3억+기타부동산)
- 매매 14억(대출3억 포함)

문의. 010-6834-7400

문의.010-3605-5000